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08월 04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4면

● 기고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을 보고

강북구의원 김명숙



7월에는 송중동, 송천동, 번2동, 수유1동, 수유3동, 우이동 등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이 사퇴하고 신입 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맡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현실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차원에서 2000년부터 동사무소의 일부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켜 운영 주체를 맡아서 해오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조례에 규정된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구민체육대회 동별 준비등의 역할이 있지만, 당초 취지에 비해 주민 참여 기능은 저조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 하도록 되어있다.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은 합의로 추대한 동(洞)이 있는가하면 대부분 투표로 선출하며 득표 동수가 되어 재

투표까지 가는 곳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경선과정에서 외부입김이 작용하여 편 가르기가 생기고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반목과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렇게 어렵게 선출된 주민자치위원장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벽을 넘지 못해 의욕을 상실하기도 한다. 허울 좋은 구실로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졸렬한 행위는 삼가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 자치위원장과 직능 단체장들도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과연 본연의 취지대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일해 왔으며 봉사를 해왔는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보니 친목단체 기능에 머물러 주민자치위원수를 채우지 못한 동(洞)도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 마다 고민은 새로운 위원의 영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성위원을 1/3이상 참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잘 시행되고 있지 않고, 25명 정원 이내에서 교체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신입 위원이 많지 않다 보니 머지않아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을 위원이 없어 걱정거리가 생긴 곳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를 위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외부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배제 하여야하고 다양한 주민자치위원의 영입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북신문 3면

◆의원기고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을 지켜보고

7월에는 송중동, 송천동, 번2동, 수유1동, 수유3동, 우이동 등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이 사퇴하고 신입 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맡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현실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차원에서 2000년부터 동사무소의 일부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켜 운영 주체를 맡아서 해오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조례에 규정된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구민체육대회 동별 준비 등의 역할이 있지만,

당초 취지에 비해 주민 참여 기능은 저조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 하도록 되어 있다.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은 합의로 추대한 동(洞)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투표로 선출하며 득표 동수가 되어 재투표까지 가는 곳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경선과정에서 외부입김이 작용하여 편 가르기가 생기고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반목과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어렵게 선출된 주민자치위원장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벽을 넘지 못해 의욕을 상실하기도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 친목단체 기능에 머물러 주민자치위원수를 채우지 못

한 동(洞)도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 마다 고민은 새로운 위원의 영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성위원을 1/3이상 참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잘 시행되고 있지 않고, 25명 정원 이내에서 교체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신입 위원이 많지 않다 보니 머지않아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을 위원이 없어 걱정거리가 생긴 곳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를 위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외부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 야하고 다양한 주민자치위원의 영입



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명숙 강북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을 지켜보고

강북구의회 김명숙 의원



7월에는 송중동, 송천동, 번2동, 수유1동, 수유3동, 우이동 등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이 사퇴하고 신입 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맡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현실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차원에서 2000년부터 동사무소의 일부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켜 운영 주체를 맡아서 해오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조례에 규정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구민체육대회 등 별 준비 등의 역할이 있지만, 당초 취지에 비해 주민 참여기능은 저조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은 합의로 추대한 동(洞)이 있는가하면 대부분 투표로 선출하며 득표 동수

가 되어 재투표까지 가는 곳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경선과정에서 외부입김이 작용하여 편 가르기가 생기고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반목과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어렵게 선출된 주민자치위원장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벽을 넘지 못해 의욕을 상실하기도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보니 친목단체 기능에 머물러 주민자치위원수를 채우지 못한 동(洞)도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 마다 고민은 새로운 위원의 영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성위원을 1/3이상 참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잘 시행되고 있지 않고, 25명 정원 이내에서 교체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신임 위원이 많지 않다 보니 머지않아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을 위원이 없어 걱정거리가 생긴 곳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를 위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외부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배제 하여야하고 다양한 주민자치위원의 영입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